

“후배 밥 한끼 사주기 겁나” ‘봄 물가’ “아들 등록금 대느라 땀나”

대학생들, 치솟는 식비 등 지출 늘어...학점 걱정보다 통장 잔고 걱정 부모, 자녀 학원비·기숙사비 대느라 허리 휘어...노후준비가 다 뭐가

“후배 밥 한끼 사주기가 겁나요...”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이지현(여·24)씨는 요즘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 덜컥 겁부터 난다고 했다. 거침없이 상승하는 물가 탓에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서다. 이씨의 한 달 생활비는 100만원 남짓.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매달 용돈 50만원과 일주일 12시간 일해 받는 아르바이트비 5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씨는 “지출을 줄여보려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아끼려는 시도가 물가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통장이 아니라 ‘당장’ (당번 통장)이다”라고 토로했다.

당장 지난해 12월 5만원까지 치솟은 도시가스요금도 부담돼 난방을 전기장판으로 대체했음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탓에 6만원이 나왔다. 덕분에 지

난 한 달 동안은 보일러를 켜지도 못했다고 한다.

물가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식비다. 한 달 40만원을 넘진 않았던 식비지출이 최근에는 45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씨는 “5000원 정도이던 학교 주변 식당 음식값이 이젠 평균 7000원을 넘어섰다”며 “얼마 전 후배 2명 점심을 사줬을 때 4만원 가까이 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의 한 달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100만원 중 80만원이 고정지출이다. 월세 26만원에 식비 45만원, 공과금 5만원, 교통비 3만원, OTT서비스 2만원 등이다. 나머지 20만원은 친구 생일 선물이나 병원비, 취업관련 서적 구입에 지출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부모님이 취업 준비 중인 딸을 격려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35만원짜리 봄 재킷을 사줬는데 감사함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섰다”고 했다.

광주 지역 대학생 A씨의 생활

난방비 아끼려 한 달간 보일러 안 켜고 버터 식당 밥값 평균 40% ‘깡충’...식비만 45만원 월세 26만원·공과금 4만원...고정지출 80만원

수도권 대학 다니는 아들 둔 엄마 B씨

1학기 등록금 380만원·기숙사비 100만원 월 용돈 70만원·서적 구입비 등 지출 늘어 맞벌이 수입 600만원 중 200만원 첫째 몫

신학기 기대감에 부풀어야 할 대학생들이 거침없이 상승하는 물가 탓에 울상을 짓고 있다. 월세부터 식비, 옷값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어 ‘학점 걱정보다 통장 잔고 걱정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점심 메뉴로 꼽히는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가격부터 치솟았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은 지난 10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 1월과 7월 가격 인상 이후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가격을 올린 것이다.

대표 메뉴인 와퍼는 지난해 1월부터 세 차례 가격 인상을 통해 6100원에서 7100원으로 16.39% (1000원)이나 올랐다.

맥도날드는 지난달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평균 5.4% 올렸다. 롯데리아도 지난달 제품 가격을 평균 5.1% 인상했고 KFC도 지난달 7일부터 버거치킨 제품 판매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영달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 가긴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둔 위경맘 김경은(여·49)씨는 “지난달 아들 1학기 등록금으로 380만원을 냈다”며 “이외 1학기(4개월) 기숙사비 100만원과 매달 용돈 70만원, 새 학기 전공 서적 구입비, 옷 구입에도 꽤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요금 10만원과 실비보험 10만원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맞벌이 가정인 김씨 부부의 한 달 수입은 600만원인데, 매달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수입의 3분의 1 수준인 2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김씨는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 학원비로도 매달 6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공공요금과 물가가 올라 생활비 지출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돈 50대에 들어서는데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4.8%)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85.9로 지난해 6월부터 줄곧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100미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사무국 이전...접근성·서비스 강화

서구 쌍촌동 ‘호반문화재단빌딩’서 오늘부터 업무 개시

광주경총경제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유관기관과 회원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국을 이전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광주경총은 기존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첨단국가산단에 소재하던 사무국을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호반문화재단빌딩’ 4층으로 이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무국 이전은 광주시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회원사와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사무국 이전으로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의 광주경총은 수행사업 수주를 통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회원사를 확보하는 등 협회 성장과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광주경총은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회원사 수도 증가하는 등 경쟁력과 위상도 강화하고 있다. 양진석 회장이 취임한 이후 45개사가 신입 회원사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규 부회장에 7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부회장 21명과 이사 11명, 감사 2명 등으로 새 임원진을 꾸린 상태. 이달 말까지 추가 이사 영입을 마칠겠다는 계획이다.

양진석 회장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회원사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들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단체이자 지역사회에는 기여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광주시, 2045 탄소중립 실현 ‘맞손’

기후 위기 대응·ESG 경영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과 광주시는 기후 위기 공동 대응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광주가 ‘2045 탄소중립도시’로 성장하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광주시 1급고를 담당하는 은행

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사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환경보호 분야와 더불어 포용금융 및 생산적금융 실천에도 주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광주은행은 기후위기 주원인인 석

탄금융 축소와 기후 금융 확산 환경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2008년부터 광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함에 따라 ‘탄소포인트 기부은행’으로 역할과 책임을 맡아 광주시민들이 광주시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탄소포인트만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광주 도시 내 ‘탄소포인트 숲’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입교생 50명 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제 13기 입교생 50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교생 선발은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창업자로, 지능형가전·디지털생체의료·스마트금융·광융합 분야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과 초격차, 신산업분야를 우대해 선발이 이뤄졌다.

제조업부터 인공지능(AI), 앱(App) 개발, 공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사업화와 관련된 특권권 보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사회적 경제기업 등 혁신·신기술로 광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역량을 보유한 청년들로 구성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와 창업준비공간 등의 전체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롯데백 광주점, LG전자 매장 새 단장

31일까지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9층 디지털전문관에 LG전자 매장의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새 단장을 마친 LG전자 매장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최신 가전제품을 판매하며, OLED TV와 나노셀 TV 등 최신 기술력의 제품이 전시됐다. 이밖에 빌트인 제품이 보강돼 인테

리어를 위한 빌트인 제품을 고객이 직접 확인 후 선택 가능하다.

특히 LG전자 오브제 상품 구성을 기존보다 확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LG전자 매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구매고객 대상으로 5% 할인 및 구매 금액대 별 사은품 증정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10년간 3조3600억 계약 체결...해의 진출 도와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지난 10년간 호남지역 기업들이 3조3600억원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용산역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6700회 이상의 비즈니스 협상이 추진됐다. 그 결과 수도권 이외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이뤄지는 등 결실을 이뤘다고 광주상의는 설명했다.

지역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전북 3개 지자체와 호남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함께 마련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매년 각 지자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 용산역사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은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수요에 적합한 회의시설 3곳과 사무공

간 등을 갖추고 있다. 업무와 네트워킹, 휴식을 모두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광주의 한 의류기기 제조기업은 2019년부터 라운지 회의실 이용을 통해 수도권 거래처를 대상으로 꾸준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소재부품 전문기업도 회의실을 이용해 해외 국영기업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1-2월 라운지 이용객은 31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고, 회의실 이용 건수도 전년 대비 65% 증가한 231건으로 라운지 이용률은 점차 증가 추세다.

한편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페이지(www.gj-i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서광주세무서,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 세금 설명회

서광주세무서(서장 신규성)는 최근 (사)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서광주세무서는 지난해 사업연도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과 세무조사, 차명계좌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성 서장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금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장 소통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 태국-베트남 수출상담 참가 기업 모집

전남도가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과 도내 수출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베트남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수출정보망 홈페이지(www.jexport.or.kr)를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류는 전남도나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남 제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 중 현지 바이어 발굴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 및 가능성 등을 감안해 15개 사 내외를 선

정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국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지로 대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 자원 인력 등이 공급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 중 하나로 1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번 수출상담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시장개척 참가 기업이 직접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현지 수입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상담 전에 구매력과 재무 상태가 건전한 수입 기업을 발굴해 참가 기업의 검증 받은 후 상담을 추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로또복권 (제105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0	22	25	34	40	2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33,168,481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074,680			83	
3	5개 숫자일치	1,408,762			3,127	
4	4개 숫자일치	50,000			151,941	
5	3개 숫자일치	5,000			2,516,955	